

# 광주형 전기차, 미 관세 뚫고 세계 달린다

캐스퍼 전기차 유럽·일본 등 66개국 수출  
광주기업 생산 부품 43% 부착 경제 활력  
광주서 자율주행 실증... AI·모빌리티 기대

인공지능(AI)과 함께 광주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인 '모빌리티' 정책이 응축된 캐스퍼 전기자동차가 유럽 주요 도시와 일본 등 66개 국가를 달린다.

미래형 모빌리티로 불리는 캐스퍼 전기차는 광주에서 생산한 최첨단 제품을 장착하고 트럼프발 미국 관세폭탄을 피해 세계 각국을 누빌 태세를 갖췄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6년 전 노사상생형 모델로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한 캐스퍼 전기차 2107대가 해외 판매명 '인스타'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10월 독일과 네덜란드 수출을 시작했다.

지난 1일에는 일본을 향해 900대가 출발해 캐스퍼 전기차 수출국은 66개국으로 늘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캐스퍼 전기차 수출량은 지난해 첫 수출 이후 3개월동안 1만여 대에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만1000대 등 2만1000여 대로 집계됐다.

유럽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전기차와 소형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캐스퍼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4만9000여 대가 전 세계 곳곳에서 달릴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 전기차는 광주에서 생산하는 부품 43%가 부착돼 기아차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캐스퍼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비롯해 타이어, 범퍼, 후드, 테일게이트 등이 광주 제품이다.

디지털 방식의 키와 10.25인치 네비게이션, 후측방 모니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과 최근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장치'(PMSA)가 부착됐다.

캐스퍼 전기차는 해외에서 대당 2600만원에서 33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기아차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 전기차 생산을 위해 38명을 신규채용 한데 이어 올해 61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현재 5만대 생산 규모에서 10만대로 늘어나면 직원도 1000명 정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기아차도 매년 33만여 대를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광주글로벌모터스에 인공지능이 융복합해 시너지를 내면서 광주는 명

실상부한 모빌리티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자율주행차량의 성능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형 운행(드라이빙) 모의 실험장치(시뮬레이터)'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승용차·트럭 등의 눈·비·안개 등 다양한 주행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레벨4(Lv.4)의 자율주행 기능을 검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개발, 성능평가, 라이더(Lidar)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 기술과 제품·서비스



광주에 구축되는 인공지능(AI)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시연. 사진=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개발도 가능하다.

광주시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유럽은 작고 귀여운 친환경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까지 수출국이 확대되면 미국 관세정책도 빚겨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이 결합하면 고도화된 '광주형 AI 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가능한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김치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신규 입점

광주시, 18~30일 최대 30% 특별할인... 무료배송 혜택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김치 온라인 판매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광주김치몰'을 새로 개설하고, 특별할인행사를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시는 스마트스토어가 별도의 광고 없이 네이버 검색과 쇼핑탭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고, 클릭 후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인 구매전환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광주김치몰'을 신규 개설했다.

'광주김치몰 스마트스토어'는 지역 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와 대통령상 수상자 등 김치 생산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100%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소비자 신뢰가 높다.

이번 할인행사는 광주김치몰과 입점업체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배추김치, 열무김치, 석박지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며 ▲전품목 10~30% 할인 ▲전국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김치몰'을 입력하거나 정보무늬(QR코드)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기존 운영 중인 광주김치몰 누리집(www.k-kimchi.kr)에서도 할인행사를 동시 진행하지만, 판매정책에 따라 일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김치몰 스마트스토어는 광주김치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써 김치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접근성과 홍보 효과가 높은 플랫폼을 활용해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종팔 기자

전라도 김치의 맛과 정  
광주김치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런칭 이벤트 04.18 - 04.30

# 전품목 최대 30% 할인 # 전국 무료배송

전라도 김치의 맛과 정  
광주김치몰

## 광주·전남 제조업 희비... 소비·건설투자·수출 모두 감소

제조업 생산 광주 13.7%↑...전남 2.0%↓  
건설투자 광주 67.2%·전남 74.3% 감소

올해 2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 실적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소비·건설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월 광주·전남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15.7%), 전기장비(+15.5%)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제1차곡식(-15.9%), 코크스·석유정제(-7.7%) 등이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했다.

광주지역 소비는 백화점(-10.6%), 대형마트(-25.4%)가 모두 줄어들어 전년동월대비 17.1% 감소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동월대비 22.1% 줄었다.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의 경우 광주는 2652대로 15.1% 증가했고, 전남은 7452대로 21.6% 늘었다.

건설투자를 보면 광주지역 건축 착공면적은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기타(-95.4%) 부문이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67.2% 감소했으나 건축허가면적은 97.9%

늘었다. 광주 미분양 아파트는 1369가구로 전월말(1234가구) 대비 증가했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416가구)도 전월(415가구)보다 늘었다.

전남지역 건축 착공 면적은 주거용(-91.9%)과 상업용(-35.0%)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4.3% 감소했다.

전남 미분양 아파트는 3391가구로 전월말(3447가구)대비 감소했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2401가구)도 전월(2445가구)보다 줄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기장비·전자부품(-23.3%) 등이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했다. 수입은 전기장비·전자부품(+31.1%), 농·수·광산물(+106.6%) 등을

중심으로 31.4% 증가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선박 등 기계류(-55.0%), 화학공업제품(-17.2%) 등이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18.8%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 등 농·수·광산물(-14.5%)을 중심으로 9.3% 줄었다.

3월 광주 소비자들이 상승률은 음식·숙박(3.2%), 식료품·비주류음료(2.0%) 등이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들이 상승률은 음식·숙박(3.4%), 식료품·비주류음료(2.2%) 등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2% 올랐다.

2월 중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 전세 가격은 0.1% 상승했다.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모두 0.1%씩 하락했다.

/임채일 기자

## 혁신도시 공공기관·지역기업 등 33곳 참여 광주전남 합동 채용설명회... 24일 전남대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용설명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4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광주·전남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역 인재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주관해 매년 열고 있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 13개 공공기관과 광주교통공사·전남연구원 등 9개 광주·전남 산하 공공기관, 광주은행·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한국알프스·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 등 총 33개 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다양한 기관에 대한 취업수요를 반영해 광주시 산하 공

공기관과 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NCS를 활용한 취업준비 전략 공유 등을 통해 힘을 보탬 계획이다.

행사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 광주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채용정보 발표, 공공기관 채용에 필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 신규직원의 취직 노하우를 전하는 취업성공사례 발표 등 학생들과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이 기관별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채용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상담부스도 마련된다. 취업 관련 진로설계 및 국민체력 100 간편측정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진행한다.

/우 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